보현산천문대 에셀분광기(BOES)의 개선과 성능 시험 결과

김강민[1], 이병철[1], 한인우[1], 장정균[1], 성현철[1], 박병곤[1], 김영수[1], 윤태석[2], D.Mkrtichian[3]

[1] *한국천문연구원*
[2] *경북대학교*
[3] *세종대학교 ARCSEC*

2002. 10.에 제작이 완료된 BOES는 시험관측을 통하여 우수한 성능과 함께 몇가지 문제도 드러났다. 이들은 BOES CCD의 온도 불안정, 분산 방향으로 나타나는 여러 개의 나쁜 행(bad columns), 형광으로 의심하였던 빛의 유입, 4000 Å 이하에서 너무 약하게 나오는 바닥고르기(flat fielding) 광원, BOES CCD창인 6번 렌즈의 손상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. 제작 후 1년이 지난 현재 이들 BOES의 문제점들은 대부분 개선되어 이제는 정상적으로 연구관측에 투입할 수 있게 되었다.
여기에서는 문제점들을 해결하였던 방식을 소개하고 그 결과로 드러난 BOES의 보다 개선된 성능 등을 제시한다.